

6·25 동란 후의 소설 『백지의 기록』과 스페인 내전 후 소설 『무』의 등장인물들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송 선 기
(조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세기 중엽 한국과 스페인은 공통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상이성으로 인한 충돌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한국은 1950년대 초부터 3년 동안 6·25 동란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고, 1930년대 후반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그 어두운 그림자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내전이 있었다.

이렇듯 스페인과 한국이 동족상잔의 쓰라린 내전을 겪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천착하여, 본 논문은 두 나라에서 전쟁 후, 소위 전후문학이라는 포괄적 단위개념 하에서 특정 작품들이 각각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를 살필 것이며, 전쟁이 어떻게까지 인간을 황폐화 시키며, 그 비극성의 구체적 실체는 어떤 것인지를 읽어 낼 것이다.

* 본 논문은 201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를 위해 스페인 전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의 한편인 카르멘 라포렛¹⁾의 『무』와 한국의 6·25 동란 이후 소설들 중의 한 편인 1957년에 발표된 오상원의 『백지의 기록』²⁾의 등장인물의 작품 속의 행위 유형들의 파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전후 소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양국의 수많은 소설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언급한 두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작품들이 전쟁의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새로운 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치열하게 극복하는지, 또는 좌절하거나 현실극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여 주어진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지를 잘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무』의 중요 등장인물들인 안드레아와 후안, 로만 등의 행위유형을 분석해 스페인 내전이 남긴 상흔이 이들을 어떻게 망가트리는지, 또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어떻게 이들의 실존의식을 깨우고 있으며, 이 실존의식을 현실극복의 의지로 승화시키는지를 밝혀 스페인 전후문학³⁾의 일단에 대한 이해⁴⁾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 보려 한다.

-
- 1) 1921년 9월 6일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그녀는 카나리아 섬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후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지만 학업을 완수하지 않고 소설 쓰는 작업에 매진한다. 2004년 2월 마드리드 근교 마하다온다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2) 『백지의 기록』은 1957년 『사상계』에 연재된 오상원의 중편 소설로 6.25의 비극성을 다룬 작품이다. 작품은 형제인 중섭과 중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그들의 부모, 친구, 여성 등장인물인 어렸을 적부터 가족 간의 교류가 있었으며 청년기를 거치면서 동생인 중서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정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형제들이 입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지에 대한 천착이 이 작품의 주된 줄거리이다.
 - 3) 전후 소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쟁 이후 10년 이내의 작품, 내용상 전쟁의 상처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난 작품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 4)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시대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허구의 세계를 지향하는 문학작품들과 작가의 상상력도 자신의 경험과 시대적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작가의 소설 작품도 당시와 그곳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문학작품 분석에는 그 작품이 쓰인 시대상을 파악하고 그 시대와 작가의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대의 생산물인 문학작품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생산한 작가의 사상과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특정 작가의 작품을 온전히

같은 맥락에서 『백지의 기록』의 형제들인, 의대생이었던 형 중섭, 상대에 다니던 동생 중서가 전쟁에서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서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절박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이겨내고자하는 현실극복의지를 보여주는지를 예시할 것이다.

또한 이 형제들과는 어려서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내며 함께 성장하였고 성장 후 동생 중서의 연인이 된 정연이라는 여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존의지를 확인하는지와 전쟁으로 인한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현실극복의지를 상실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 소설에 드러나는 각각의 나라들에서의 전쟁의 상처들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작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II. 『백지의 기록』의 등장인물들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1. 중섭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백지의 기록』은 중산층 가정의 지식인 부모와 의과대학에 다니던 형 중섭, 상과대학에 다니던 동생 중서로 구성된 단란했던 가정이 전쟁으로 해체될 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휴머니즘 계열의 소설이다. 화목한 가정의 인물들이 지닌 휴머니티는 형제가 전쟁에서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지만 이를 이겨내는 극복의 의지에 작품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형제는 소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직면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

결국 이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전쟁에 철저히 종속되어 스스로를 자학하고 체념함으로써 생에 대한 투철한 자기인식의 기반위에서 현실을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형 중섭은 병원에서 중학 동창 준을

이해할 수 있다.

만나고 동생 중서는 옛 연인 정연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회복하게 되는 동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듯 형제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은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자신을 확인해 나간다.⁵⁾

군의원으로 입대한 형 중섭은 어느 날 전방부대의 연대장이 포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자 그를 앰블런스에 태워 야전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전 중 중상을 입고 길거리에 쓰러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일등병을 발견하지만 연대장 부관의 만류로 그를 버려두고 야전병원으로 향한다. 일단 연대장을 야전병원으로 호송시켜놓고 중섭은 다시 그 병사를 구하려 포연 속으로 뛰어 든다. 이 과정에서 적군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는 포격의 파편으로 팔의 일부분과 손이 잘려 나가고 다리에도 중상을 입어 심한 골수염으로 2차 감염을 우려한 군의관이 이를 절단한다. 다리와 손을 잃은 불구의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자신의 몸의 심한 장애에서 오는 자괴감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자폐적 행동을 보이고,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성격을 드러내다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위기는 중섭이 이미 되돌아 갈 수 없는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중섭이 처한 암담하고 극단적인 상황은 그에게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즉 실존의식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촉매제가 된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죽음, 그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점점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인제 약기운이 전신으로 퍼져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약기운에 포근히 젖어 잠이 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다.(59)⁶⁾

5) 김용희, 「오상원 전후소설의 실존의식」, 『비교문학』 44집, 328.

6) 이하 작품 인용은 오상원, 서기원 집, 『백지의 기록』, 『현대문학전집』 제7집, 신구문화사, 1966으로 하고 쪽수만 표시한다.

결국 그의 자살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입원한 병원에서 입대 전 다녔던 중학교 동창이며 자신처럼 의학을 공부하다 입대한 준을 만난다. 동창 준도 그와 같이 참전하여 얻은 부상으로 한쪽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 일부가 함몰되어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정신과 의사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첩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복하기 보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중첩은 입원한 병원의 부상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손이 없거나 눈이 한쪽 없는, 혹은 다리가 없는 부상자들이 보여주는 재활의지에 감동하여 자신이 이제껏 지나간,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의 껍질에 쌓여 오늘의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했음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카타르시스 시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나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소용없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나로 인하여 나는 지금의 나를 경멸하고 저주하고 너무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그는 지금껏 무겁던 속이 탁 터져나가는 것만 같았다.(78)

그는 이 자기인식의 과정을 통해 상이군인들이 모여 살며 새 삶을 꾸려나가는 재활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을’에 갈 결심을 하면서 새롭게 살아 갈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사실 그가 선택한 재활촌도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손상된 육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을’에 가서 암담하지만 자신의 실존을 의식하는 한편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완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재활촌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서서히 육체로 인한 강박과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파편화되고 사라져갔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7)

7) 김장원, 「전쟁 상처의 잔혹성과 상처치유의 가능성-오상원의『백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5집, 272.

중섭이 단지 재빨론의 전쟁 불구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극복 의지를 다지며, 그들의 생활에 공감하는 부분은 이 작품의 관념 지향적 소설의 특징과 그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전후소설의 관념 지향성은 절망적 현실의 반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 넘고자하는 극복의지도 내재해 있다.⁸⁾는 관점에서 이 소설도 당시 전후소설의 보편적 경향, 즉 각박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치열하게 극복하는 등장인물들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중인물 개인인 중섭의 생의 의미 파악과 정체성 확인의 동인도 일정부분 관념적이지만, 절망적 상황 하에서의 인간 존재의 자기 확인 즉, 실존의식의 확인과 현실극복의지도 보여준다.

사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인간은 그다지 자기 존재를 의식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실존에 대한 자각이란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념을 수 없는 벽을 의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⁹⁾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섭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는 자연스럽게 실존의식의 회복과 연결된다. 이렇듯 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이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상기시키며, 작품의 지향성이 전쟁이 준 상처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에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작품 전체의 흐름과 맞물려 간다.

2. 중섭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상과 대학에 재학 중 전쟁에 나갔던 동생 중섭은 육체적으로는 온전하지만 전쟁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당한다. 중섭은 발잔등에 관통상을 입어 발가락 두 개의 기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신체의 다른 부위는 별 탈이 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전쟁의 정신적 상처와 연인의 행방불명에 의한 심적 고통으로 전에 지녔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술에 찌들고 사랑 없이 여인의 육체를 탐닉하며 방황한다.

밤마다 사창가에서 매춘부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방식으

8) 유철상, 『한국전후소설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

9) 박이문, 「실존주의 문학과 실존철학」, 『문예사조의 새로운 이해』, 오성근이성원홍정선 엮음, 문학과지성사, 197-203.

로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성순희라는 여성을 알게 되고 그녀를 육체적으로 유린하려 하지만 성순희는 그의 유혹을 물리치고 떠나간다. 그녀는 중서를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가 쓴 수기라고 소개하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과정을 적은 글을 전해 준다.

그 수기의 주요 내용은 한 남자가 형란이라는 여성을 사랑하였으나 남자가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남자는 전쟁 기간 중의 성 접촉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성병을 얻어 이 병을 애인에게 전염시키게 되며 애인은 이를 비판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중서는 그녀가 전해준 수기속의 주인공들의 상황과 자신과 정연 사이의 사랑이야기와 연결시킨다. 여기서 성순희가 일종의 예를 드는 방식으로 도입한 형란이라는 인물이 성순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 본다.

형란 혹은 성순희의 아픔과 고통처럼 중서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이 남긴 아픔을 안고 삶에 대한 회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작품의 후반부까지 묘사되고 있는 중서의 삶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이며 그에게 생은 공허한 것으로만 느껴진다. 사실 중서는 작품의 중반 이후까지 절망과 좌절을 이겨낼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며 과거의 상황에 철저히 종속되어 스스로를 자학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취한다. 전쟁은 이처럼 젊은이의 미래마저 암담한 어둠 속으로 몰아간 것이다. 희망을 안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젊은이들이 전쟁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순진하였던 그는 전쟁이란 냉혹한 현실이 이루어 놓은 무질서한 울타리 속에서 자기를 매몰시키고 말았던 것이었다. 음탕한 여인의 웃음과 몸짓을 따라 같이 킁킁거리며 제멋대로 감각의 울동을 타고 히히덕거리고 술을 처먹고 비꼬일 대로 비꼬여 역설만을 지껄여대게끔 되어 버렸던 것이었다.(57-58)

그는 술에 취해 살며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 여성들과의 성적인 관계 등을 통해 정신적 공허함과 허무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 진정한 자기 확인은 불가능한, 파괴적 허상을 좇는 것이다. “전쟁 상처의 극복과 회복의 방식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¹⁰⁾

결국 중서는 옛 애인 정연을 형 중섭이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원에서 만나는데 만신창이가 된 정연과의 재회 과정에서 전쟁의 비극성은 극에 달한다. 정연이 회복하는 데 힘쓰면서 새 희망을 품고 스스로 존재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며 살아가야하는 인간의 숙명, 즉 인간의 실존을 의식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다. 정연이 끝내 자살하자 다시 절망하지만, 곧 이겨낸다.

3. 정연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앞 절에서 살펴 본 등장인물 중서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집안끼리 도 가깝게 지내던 정연이 숙녀로 성장한다. 정연과 중서는 애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성숙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3년간의 전쟁은 이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안긴다.

정연은 어머니를 전쟁 통에서 여의었고 전선에서 배회하다가 군인들로 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후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 후 모든 남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옛 연인 중서도 못 알아 볼 정도의 기억상실증에 시달린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치료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발작증상과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중섭이 입원한 병원에서 일하는 중섭의 중학 동창 준의 연락으로, 그녀는 전술한 바처럼 전쟁의 정신적 상흔을 극복하지 못하고 술집과 사창가의 여성들을 탐닉하고 돌아다니던 중서와 재회하게 된다. 정연도 중서도 전쟁이 남긴 상처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의 재회이다. 여기에서 전쟁이 남녀 모두에게 안긴 비극적 현실은 최고조에 달한다.

남자들만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여자들도 전쟁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녀 역시 전쟁의 피해자다. 이렇듯 여성은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함은 물론 또 한편으로 다른 피해자인 남성에게 의해 다시 고통 받는 이중의 피해를 입은 존재로 나타난다.¹¹⁾는 관점에서 정연은 여성으로서 이중

10) 정희모, 『1950년대 한국문학과 서사성』, 깊은샘, 216.

의 피해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병원의 집중적인 치료와 중서의 애뜻한 사랑의 힘으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어머니를 낳은 땅에 묻고 온 아픔과 자신의 망친 몸과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를 자식을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된다.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원건물의 계단에서 몸을 날려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키고 이로 인한 하혈로 죽게 된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베게 밑에서 한 장의 유서가 발견된다. 그녀는 전쟁 통에서 그토록 그리던 연인 중서를 다시 만나고 새롭게 상실하였던 삶의 의지, 즉 현실극복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전쟁이 가져다준 그 상처의 가혹함으로 주저앉고 만다.

저는 잃었던 삶의 길을 다시 찾는 것만 같아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시 금 행복 되려는 제 눈앞을 무자비하게 가로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님 곁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것만이 제게 남은 길인가 합니다.(97)

정연을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온 날 밤, 중섭과 중서의 가족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다. 이 모임의 자리에서 정연은 중섭, 중서 형제와 그들 가족에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녀의 죽음은 중섭의 가족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카타르시스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결국 그녀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자신을, 개별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인식하는 실존의식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어둡고 캄캄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현실극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상실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즉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존적 존재임은 확인된다.

11) 유철상, 『앞의 책』, 208.

Ⅲ. 『무』¹²⁾의 등장인물들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1. 후안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내전 직후인 스페인에서의 1940년대의 소설은 일명 실존소설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내전을 직접 체험한 작가들의 현실인식과 내면의식이 짙게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시기, 예를 들어 카밀로 호세 셀라, 카르멘 라포렛, 미겔 델리베스 등 일단의 작가들은 실존적인 시각에서 일상의 비참하고 암울한 단면들을 파헤치고 있다. 그래서 소베하노는 1940년대를 전후한 스페인 문단의 특징을 실존적 리얼리즘의 조류로 파악하였다.¹³⁾

이 시기의 스페인 소설들은 그 이전 시기의 공포주의 경향을 계승하는데, 이 공포주의 하에서 작품들은 개별 주인공이 겪는 존재의 문제, 실존적 공허감 등이 다루어진다.¹⁴⁾ 같은 맥락에서 『무』도 작가가 소설 속에서 반영하는 정체와 가난이 전후 스페인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천착이라는 의미에서 실존주의 소설¹⁵⁾의 특징을 갖는 작품이다.¹⁶⁾ 다시 말해 이 소설이 부조리한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인간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 후안은 장교가 되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그는 군 생활 과정에서 정신적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12) 이 소설은 주인공 안드레아가 바르셀로나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1인칭으로 서술되며 40년대 스페인 사회가 겪은 비참한 상황을 고발한다. 이 작품으로 카르멘 라포렛은 전후에 출현한 소위 실존주의라는 문학적 흐름과 관련을 맺는다.

13) Gonzalo Sobejano, *Novela española de nuestro tiempo, Lección de novelas España entre 1940 y ayer*, marenostrum, 92-93.

14) http://es.wikipedia.org/wiki/Novela_social_espa%C3%B1ola

15) 곤살로 소베하노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스페인의 특정시대 특정소설가들이 반드시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실존에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관점에서 만든 용어로 1930-40년대의 스페인 문학의 일군의 흐름을 정의하고자 했다.

16) 이 소설은 주인공 자신이 바르셀로나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1인칭으로 서술된다. 즉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갓 나온 젊은 안드레아가 아닌, 시간이 흐른 뒤의 성숙한 안드레아가 아리바우 거리를 기억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카르멘 라포렛의 관점이 바로 안드레아의 관점 그 자체가 된다.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는 생계수단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아내 글로리아가 그녀의 언니 집에서 벌어지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집에 남은 내전이전의 중산층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재도구들을 팔아 식비를 마련한다. 후안은 이런 아내의 태도가 몹시 못마땅하여 언제나 트집을 잡아 거의 날마다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는다.

후안이 그녀의 어깨를 사납게 잡아챘다. 나, 너 같은 자식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고! 나는 글로리아가 발코니 쪽 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 유리창이 쟁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녀가 거실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245)¹⁷⁾

이와 같은 폭력적인 후안의 태도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다. 전쟁의 상처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트리우마를 남겼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후안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자살한 동생 로만의 유품인 피아노를 팔아서 저녁식사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 알고서 그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눈에는 광기로 가득 차 아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는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며 폭발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후안을 참아내지 못하던 작품의 주인공이며 후안의 조카인 안드레아와 아내 글로리아는 그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운다.

다음날, 글로리아가 내 방으로 살그머니 찾아와 의사를 불러다 후안 삼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겠다고 귀엣말을 소곤거렸다. -그게 좋겠어요- 내가 대답했다.(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 계획이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289)

17) 이하 작품 인용은 Carmen Laforet, *Nada*, Ediciones Destino, 1979로 하고 쪽수만 표시한다.

한때는 화목하고 유복했던 내전 이전의 스페인의 한 중산층 가정이 어떻게 붕괴되고 파괴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전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아픔은 가족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전후 스페인 사회의 비극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후안은 전쟁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서 파생된 비극적 현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후안의 폭발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는 전쟁의 일반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내게 몇 가지 일러둘 게 있다. 내 형제들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안됐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두 삼촌들은 전쟁 후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는 거야... (...)들 다 전쟁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했거든. 나도 그들 때문에 몹시 힘들었다.(26-27)

작품 내내 가족 사이에 오가는 언어적 폭력과 가난에 찌든 삶은 내전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가감 없이 체현하는 것이며, 집안의 암울하고 지저분한 분위기는 작품 전체를 압도한다. 이러한 분위기와 정신상태 속에서도 후안은 나름대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후안이 생계 수단중의 하나로 선택한 그림 그리기는 일과 관리인으로서의 일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들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자신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여 앞으로 나간다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절망적인 가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현실극복의지로 승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그는 개별적인 나, 주체성을 가진 나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의식은 뚜렷하며 참담하지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인물이다. 이렇듯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절망의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좌절과 불안의 극복을 위한 희망의 파노라마이다.

2. 안드레아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이 작품의 주인공 안드레아는 어떤 이유에서 고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아 스페인 내전의 희생양으로 부모가 죽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후 그녀는 사촌 언니와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다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오게 된다. 주인공 안드레아가 생활해왔던 외할머니 댁도 내전이전에는 상당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산층이었으나 내전 이후 완전히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정이다. 전후 파괴에서 기인한 가난은 젊은 세대의 삶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 버린다.

나는 내 자신의 본 모습도, 내가 꾸어 온 꿈들도 다 잇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계절의 향기를 느껴보는 일도,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것도 포기하고 말았다.(44)

작품의 주인공 안드레아가 어느 날 둘째 외삼촌인 로만과의 대화를 통해 안드레아 자신을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로만삼촌이 날 조금은 색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른 사람보다 교육을 잘 받은, 아마도 좀 더 영리하고, 게다가 위선적이고,
희한한 열망으로 가득 찬 아이. (...)그렇지만 나는 웬지 모르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39)

위선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상적인 소녀의 이미지, 허무주의적이고 소극적이며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그녀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녀는 철저한 가부장적 가족의 전형적 구성원이었던 이모에 의한 훈육과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등의 교육으로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운명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강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끝이 똑같은 길이고 막다른 골목이라면, 인생을 굳이 힘겹게 뛰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향유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어떤 이들은 죽도록 일하기 위해 태어나고, (...)난 관조자의 역할을, 그것도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도록 태어난 것 같다.(224)

즉 그녀가 스스로의 존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존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통한다. 그녀는 작품에서 이렇듯 자신의 인생을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비유하여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비하하고 있다. 삶을 향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닌 단지 타인의 삶을 관조하기 위해 태어난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인물과는 상이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이제 에나의 초대로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떠나게 된다.

마드리드에서 그녀는 바르셀로나에서 겪었던 가난과 고독, 불안, 좌절, 그리고 그녀의 정신을 움아매는 외가댁 식구들의 굴레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향해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도 치열한 자아정체성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친구 에나의 아버지의 배려로 기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겨 전체적으로 그녀의 삶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난이라는 어려운 여건과 싸우면서도 대학을 다니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과정은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획득한다. 실존주의 소설의 본질이 '자기의 본질을 완성시키기 위해 여러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며 인간 조건을 추구'하는 점에 있다는 관점에서 안드레아는 자신의 새로운 삶, 즉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현실에 참여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존회복의 가능성은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3. 로만의 실존의식과 현실극복의지

등장인물 로만은 천재적인 음악가 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지만 다락방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구성원들과 유리된 채로 생활한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의 태도를 드러내며 나 이외의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고립된 세계에 빠져든다.

한때는 진도유망한 젊은 예술가로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전쟁 후 광기를 지닌 냉소적이며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한다. 그는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자신을 추스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생 자체에 대해 자포자기의 태도를 취하여 실천적 인간이 되지 못한다.

내가 왜 자연을 사랑할 수 없는지 모르겠구나. 그토록 무섭고 가혹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장대한... 난 특별한 것에 대한 취향을 상실했어.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고갯길의 세찬 바람보다 더 나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보면... 난 이제 끝난거야. (66-67)

이렇듯 그는 자신이 예술가로서의 생명력이 다했음을 조카에게 고백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후 로만은 자신의 형 후안의 부탁으로 타라고나에서 미래의 형수를 바르셀로나로 동반해 가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때까지는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 그리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만은 바르셀로나로가는 과정에서 숙소에 머물면서 미래의 형수와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고서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어느 날 로만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형수를 침실로 끌어들이려 한다.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모두 들춰낸다. 삶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 버린 로만은 이미 자신의 형 후안과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수인 글로리아에게 몸을 요구하는 비 인륜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듯 가족과의 관계도 비정상적이며, 다분히 허무주의적인 의식의 공황상태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고 포기한 그의 파괴적 삶은 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젊었을 적, 주인공 안드레아의 친구였던 애나의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다 파경에 이르렀고, 형수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으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조카인 안드레아의 친구 애나에게 빠지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총명하고 빼어난 예술적 재능의 소유자였지만 타고난 재능을 전쟁의 후유증으로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고립되고 폐쇄된 자신의 내부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 결국 그는 생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고, 현실극복의지를 상실한 채 면도칼로 목을 그어 자살한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위 쪽을 가리켰다. 후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걸 보았다. 누가? 누가 죽었냐고, 이 멍청한 여자야? 후안은 미친 듯이 문 쪽으로 계단 쪽으로 내달렸다(...)
-면도칼로 목을 베었어요. 말을 마친 안토니아 아줌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절망적으로 오열했다.(275-276)

이렇듯『무』는 전쟁이 사회와, 특히 젊은이들에게 끼친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악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부조리한 세상에 홀로 던져진 나, 개별자로서의 나, 주체성을 가진 나를 인식하고, 나 자신의 존재방식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실존적 존재라면, 자신의 삶 자체를, 즉 자신의 생명에 대한 생사여탈권까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만은 실존적 존재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한 현실극복의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인물이다.

IV. 결론

스페인과 한국의 전후 소설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유독 이 두 작품에 주목한 이유는, 이 두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전쟁에서 입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실 사회에의 적응에 문제점을 느낀지만 충만한 현실극복의지로 이를 극복하는 경우와, 좌절하여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사실 모든 나라에서 전쟁은 그것을 경험한 구성원들에게, 혹은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삶을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것으로 만든다.

『백지의 기록』에서 중섭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진 심각한 훼손에 대해 절망하여 한동안 방황하지만 친구 준의 도움과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들의 마을’에 가서 암담하기만 했던 자신의 실존을 의식하는 한편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절망적 상황 하에서의 인간 존재의 자기 확인, 즉, 실존의식의 확인을 통한 현실극복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 중서도 전쟁의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옛 애인 정연을 형 중섭이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원에서 만나게 되고 정연이 회복하는 데 힘쓰면서 새 희망을 품는다. 그는 스스로 존재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며 살아가야하는 인간의 숙명, 즉 인간의 실존을 의식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다. 정연이 끝내 자살하자 다시 절망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곧 이겨낸다.

한편 정연은 전쟁 통에서 몸을 망치고 임신한 충격과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상처로 정신착란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그토록 그리던 연인 중서를 만나고 상실하였던 삶의 길을 회복하고 현실극복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전쟁이 가져다준 그 상처의 가혹함으로 자살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주저앉고 만다.

카르멘 라포렛의 『무』는 기본적으로 전후 비참한 환경에 놓인 가난에 찌들고 생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인간 군상들이 불안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혹은 운명에 굴복하여 좌절하는가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전후 스페인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공간을 통해 당대의 스페인 사회를 비판하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인간들의 삶의 과정을 보여준다.¹⁸⁾

등장인물 후안은 생계 수단중의 하나로 선택한 그림 그리는 일과 관리인으로서의 일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극복의지의 구

18) Cyrus C. DeCoster. 「Carmen Laforet: A Tentative Evaluation」, *Hispania*, vol. 40, núm. 2(May, 1957). 정선옥, 「프랑코 시대의 스페인 여성 문학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23에서 재인용.

체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인물 로만은 전도유명한 젊은 예술가로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존재에 대한 불안 의식을 떨쳐내지 못하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 자신을 추스릴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숙고를 통해 실존의식을 회복해야 하지만 직면한 현실 앞에 굴복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작품의 등장인물 안드레아는 내전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이다. 그녀는 사촌 언니와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다가 외할머니 댁에서 대학을 다닐 목적으로 바르셀로나에 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작품을 통해 파악되는 그녀의 생활 태도나 삶의 모습은 의존적이고 정체성이 부족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그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을 다니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과정은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획득한다.

즉 그녀의 결심은 새로운 삶, 즉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에의 참여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존적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인과 실존 회복의 가능성은 있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작품은 전후소설이 담고 있는 전쟁에서 파생된 비극적 현실을 각각의 작가가 상정하고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전쟁의 상처로 좌절하거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실존의식을 회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절박한 상황을 충만한 현실극복의지로 이겨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쟁의 상처란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한 인간과 사회의 파괴와 새로운 삶을 향한 현실극복의지의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

❖ 참고 문헌

- 김용희, 「오상원 전후소설의 실존의식」, 『비교문학』 44집, 320-346, 2008.
- 김장원, 「전쟁 상처의 잔혹성과 상처치유의 가능성-오상원의 『백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5집, 271-301.
- 뤼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 방법론』, 박영신 외 옮김, 현상과인식, 1984.
- 박이문, 「실존주의 문학과 실존 철학」, 『문예사조의 새로운 이해』, 오생근이성원홍정선 엮음, 문학과지성사, 2000.
- 배경열, 『한국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태학사, 2001.
- 오상원, 서기원 집, 「백지의 기록」, 『현대문학전집』 제7집, 신구문화사, 1966.
- 윌리엄 후벤, 『도스토오프스키, 키에르케고르, 니체, 카프카』, 윤지판 옮김, 까치, 1983.
- 유철상, 『한국 전후 소설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2.
- 정선옥, 「프랑코 시대의 스페인 여성 문학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8권, 205-225.
- 정희모, 『1950년대 한국문학과 서사성』, 깊은샘, 1998.
- 조건상, 『한국 전후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 프리드리히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민홍 옮김, 집문당, 1990.
- BASANTA, Angel, *La novela española de nuestra época*, Madrid, Anaya, 1990.
- BUCKLEY, Ramón, *Raíces tradicionales de la novela contemporánea en España*, Ediciones, Península. Serie Universitaria, Barcelona, 1982.
- CERRADA CARRETERO, Antonio, *La novela en el siglo XX*, Madrid, Playor, 1983.
- DE LA FUENTE, Inmaculada, *Mujeres de la posguerra, de Carmen Laforet a Rosa Chacel: historia de una generación*, Planeta, 2ªed., Barcelona, 2002.
- GARCIA VIÑO, Manuel, *La novela española desde 1939*, Madrid, 1994.
- _____, *La novela española de Posguerra*, Madrid, Publicaciones españolas, 1971.
- J. P.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왕사영 옮김.
- LAFORÉ, Carmen, *Nada*, Ediciones Destino, 1979.
- LUENGO, Ana, *La encrucijada de la memoria colectiva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en la novela contemporánea*, Berlín Verlag Walter Fray, 2005.
- SANZ VILLANUEVA, Santos, *Tendencias de la novela española*, Madrid, Edicusa, 1972.
- SOBEJANO, Gonzalo, *Lección de la novelas de España entre 1940 y ayer*, Madrid,

Marenostram, 2007.

<http://islabaia.com>

http://es.wikipedia.org/wiki/Literatura_esp%C3%B1ola_posterior_a_la_guerra_civil

❖ ABSTRACT

The Existential Conscience and Steadfast Spirit of Characters
in *Nada* and *Writing on Blank Paper*

Song, Sun-k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methodology useful for identifying links between the postwar novels of Spain and Korea. We analyze the lives and actions of the characters from *Nada* by Carmen Laforet, and *Writing on blank paper* by Oh Sang Won. The characters in these novels demonstrate the challenge of adapting to the harsh reality of life because of the psychological or physical scars of war: characters such as Jungsub and Jungseo in *Writing on blank paper* and Juan and Andrea in *Nada* finally overcome their difficulties thanks to a shared sense of existential conscience and a steadfast fighting spirit; others, like Jungyun and Roman, surrender to the struggle and commit suicide, tragically succumbing to the bitter harshness of real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novels' characters, we can empathize with the common tragedy of war-time life and death; we gain perspective on the destruction of both society and people caused by war.

Key Words

한국, 스페인, 전후소설, 무, 백지의 기록

Korea, Spain, Postwar novels, *Nada*, *Writing on blank paper*

논문접수일: 2013. 11. 09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